

민선6기 성공에 행정력 집중

임실군, 부서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회... 정책방향 등에 중점

임실군이 민선 6기 성공적 완성과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19일부터 심민 군수의 주재 아래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부서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향후 중점사업 추진 전략수립에 중점을 모아 나간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상반기 추진 성과를 집중 분석하는 한편 하반기 정책방향과 주요업무계획,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상황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가장 먼저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는 농업정책과를 시작으로 축산산림과, 안전관리과, 지역경제과 등 순으로 진행됐다. 농업정책과는 농가실질소득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 성과와 하반기 중점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축산산림과는 AI 가축방역과 대통령 지역공약인 성수산 산림비오 힐링타운 조성에 대해, 안전관리과는 각종 재난관리체계 운영 등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지역경제과는 새정부 일자리정책 대응방안 마련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주요핵심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개별 보고 형태로 진행하는 한편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와 문화 등 관련부서와의 토론행태로 운영했다. 행정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협업에 관점을 두고 실질적인 업무추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임실군은 한편 올해 상반기 일진제 강 임실제2농공단지 2,000억원 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비롯, 전라북도 등부 개발전사업평가 A등급, 임실N치즈 4년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선정, 국토부가 주관한 건축행정 건설화 평가 최우수상 수상, 국민권익위원회 심진감평 수불민 생계대책 현장조정 등 굵직한 성과를 낸 바 있다. 또한 군 재정규모를 3,700억원으로 끌어올리고, 6월 현재 972억원의 국가 예산과 10개 공모사업 선정으로 3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심 민 임실군수는 "그동안 군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많이 이뤄냈지만, 여기에 머물러선 안되고 한단계 더 도약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하반기에도 중요한 현안을 객관부서와의 토론행태로 운영했다. 행정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협업에 관점을 두고 실질적인 업무추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임실군은 한편 올해 상반기 일진제 강 임실제2농공단지 2,000억원 규모

/임실=진홍영 기자

농기계 임대사업, 농민들의 '농사도우미' 자리매김

임실군, 2010년 이후로 임대 수혜대상 크게 늘어나...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큰 효과

임실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의 든든한 농사도우미로 자리 잡으며 농촌활력 정책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19일 임실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농기계를 임대 사용한 농가는 3,637농가로 4,005대의 농기계를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작년 한 해 임대실적인 6,119 농가를 훌쩍 뛰어넘는 등 지난 2010년 사업실시 이후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군은 지난 2010년 농기계임대사업을 시작해 현재 임실군 내 중부·서부·남부·북부임대사업소 등 권역별 4개소의 사업소를 설치 운영 중이다. 당시 329농가에서 시작해서 2011년과 2012년에는 2000여 농가 안팎에서 머물다가 2013년과 2014년 3500여 농가로 차츰 증가세를 보이더니, 2015년에는 3900여 농가에서 지난해 6000여 농가를 돌파하는 등 민선 6기들어 활발한 정책 추진으로 수혜 대상이 크게 늘었다. 임대사업소는 농업용 소형굴삭기와 논두렁 조성기, 각종 작물파종기 등 총 22종 761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에 신속하게 임대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농가는 값비싼 농기

계를 사지 않아도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게 돼 농기계 구매와 수리 부담을 덜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기계관리를 군에서 지속적인 추진으로 농민들은 늘 새 것처럼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더 주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휴일 농기계 임대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또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해부터 운영한 농작업 대행 작업단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군이 보유한 농기계로 보리수확과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작업 등 농작업을 대행, 추진 중이다. 군은 이를 위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리전용 수확기와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 작업기 등 8종의 16대에 달하는 농기계를 구입했다. 또한 이들 농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까지 선발해, 농작업 대행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심 민 군수는 "농사철에 가장 필요한 농기계지만 기계값이 너무 비싸고, 고장수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해 줘도 농사짓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생산성도 높아진다"며 "앞으로 더 많은 예산 확보로 오래된 농기계를 교체하고, 새로운 기종을 확보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북흥면, 농가 일손돕기 추진

순창군 북흥면(면장 최면식)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 제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정용) 회원 50여명이 지난 17일 북흥 서지마을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 자매결연 지역 우호증진을 물론 부족한 농촌 일손에도 큰 도움을 줬다. 이날 장안 제2동 주민자치위원회원들은 출하가 한창인 오디따기에 일손을 보냈다. 또 일손돕기를 마친 후에는 북흥면 농·특산물 작목반들과 주민자치위원회원들과 간담회도 진행돼 상호 교류확대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북흥면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고랭지 배추와 순창 전통고추장을 선물로 준비해 양 지역의 변함없는 우호 증진과 농산물 홍보에도 큰 일조를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꿈나무들의 끼·재능 맘껏 뽐냈다

임실청소년동아리 축제 성황리 열려

제1회 임실청소년동아리 축제가 지난 17일 임실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렸다. 임실YMCA(이사장 최진태)가 주최하고 임실군과 전라북도, 임실교육지원청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임실지역 청소년동아리와 임실어린이합창단, 자원봉사자, 임실지역청소년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축제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날!'이라는 주제로 임실지역 10개의 청소년동아리와 임실어린이합창단, 영드림앙상블(현악기로 구성된 전문 팀)이 참여했으며 지역의 유명 동아리인 임실고등학교의 플래시댄스, 임실치즈과학고 코마 등 출연이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의 호응이 대단했으며, 임실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임실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에 큰 관심을 보였다. 노래와 댄스동아리 10팀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그동안 학업으로 지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잠재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구만성 축제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동아리는 사회성과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며 동아리 활동으로 서로 대화하며 민주주의와 사회성을 배우고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된다"며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민 임실군수도 축사에서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다"며 "임실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꿈과 열정을 갖고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금지면 청산리에 인도교 설치

남원시(시장 이원주)는 요천과 풍촌천의 합류지점인 금지면 청산리에 인도교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요천100리길과 연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남원시 도심을 흐르는 요천 우안지역으로 합류되는 지류하천 광치천, 옥육천, 대곡천, 풍촌천 중 마지막으로 설치되는 이번 인도교는 총 예산 3.5억원을 들여 길이 56.3m, 폭 3.0m이다. 상판은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목교 형태로 설치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노인복지관, 합동캠페인 펼쳐

임실군노인복지관 한갑수 관장은 최근 임실을 터미널 맞은편에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복지관을 알리고 더불어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합동캠페인을 개최했으며 이와 더불어 임실군생활체육회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아파봉사단과 지역사회 어르신 약 15여명이 참여하여 임실 6일장을 찾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지관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품과 리플릿 등을 배부하고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노인상담사가 노인문제에 대해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노인 인권보호의 중요성과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간점검

2017년도 절반에 다다른 6월, 남원시의회가 17일간 열리는 제 216회 정례회로 분주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지난 12일 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그동안 이뤄졌던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서남대의 재정기여자 문제를 언급하며 서남대 구성원은 물론 남원시민들이 지지하는 재정기여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으며, 남원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인구 늘리기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검토를 요구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광치동 바이오메스 발전소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시민의 동의 없는 정책 추진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출산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관련 조례의 제정 및 현실적인 지원책의 발목을 주문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청년 농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 교육 추진

순창군이 농촌에 정착한 젊은 청년 농부 16명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농업발전을 이끌 핵심인력으로 성장시키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16명을 선정해 농업 경영관련 이론과 성공 농장을 방문하고 토론하는 형식의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2030비즈니스 모델 구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총 11회 교육으로 오는 23일 마무리 된다. 11번의 교육과정 중 최근 10번째 현장교육으로 동계면 감평수씨의 아동실농장을 방문해 매실과 아로니아 농사와 성공할 수 있었던 마케팅 기법 등에 대해 배우고 함께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2030 비즈니스 모델 구축 교육'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실제교육에 참여한 청년농부들의 농장을 직접 방문하고 성공비법, 문제점 등을 함께 고민해 본다는 점이다. 지역의 농업 현실의 과제와 미래 비전을 누구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농업 현장이라는 점에서 교육효과가 배가 되고 있다. 실제 회장을 맡고 있는 쌍치면 또바기 농장 대표 신성원 교육생의 화제 치유농업 체험농장, 풍산면 더디가는 농부 권주철씨의 달팽이 체험·교육농장, 순창 쌍둥이 농장의 생산·가·유통의 6차 산업 농장, 쌀로 꽃을 피우는 구립면 프롤라이스 대표 양미영씨의 쌀로 만든 새로운 건강한 먹거리 등 교육생 대부분은 각자의 개성으로 농촌에서의 성공 기업의 꿈을 키워가는 청년 농부들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콤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